

# 崔氏 武臣政權과 門客集團

김 선 아\*

1. 머리말
2. 崔忠獻 執權期 門客集團의 構造와 性格
3. 崔怡의 襲權과 門客集團의 再編
4. 崔沆·崔埶의 襲權과 門客集團의 役割
5. 맺음말

## 1. 머리말

高麗 武臣政權 시기 가운데서 가장 주목되는 세력은 4대에 걸친 崔氏 一家이다. 이들은 4대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집권하며 고려 무신정권 시기를 주도해 나갔다.<sup>1)</sup>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최씨 정권의 門客은 그들의 집권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최씨 정권은

\*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1) 邊太燮, 「高麗後期 武班에 대하여」, 『高麗政治制度研究』, 一潮閣, 1971; 洪承基 編, 『高麗武人政權研究』,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5; 金塘澤, 『高麗武人政權研究』, 새문사, 1987; 閔丙河, 『高麗武臣政權研究』,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0; 吳英善, 「최씨 집권기 정권의 기반과 정치운영」, 『역사와 현실』 17, 1995; 吳英善, 「무신정권과 사병」, 『역사비평』 29, 1995.

자신의 지위를 보호하고, 무력으로 자신의 계획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에서 측근 세력 집단인 문객을 양성했기 때문이다. 崔忠獻의 경우 개인적 문객을 수천 명으로 대폭 늘렸다. 崔怡는 문객을 政房·書房 등에 등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씨 家에 寄宿하면서 그 정권을 호위하며, 대가를 바라는 자들이었다.<sup>2)</sup> 이처럼 문객은 최씨 정권의 통치에 매우 중요했다.

문객은 신라시대부터 그 존재가 확인되며, 삼국통일 이후 강력한 전제왕권의 수립으로 인해 위축되었다가 下代에 다시 팽창하여 私兵의 기원이 되었다.<sup>3)</sup> 고려시대에 들어서 李資謙 같은 독재적 문신 지도자들에게 무력의 원천이 되어왔던 私兵 조직은 武臣政變이 끝나자 급속히 확대되었다.<sup>4)</sup> 이는 집권무신의 사적인 무력기반이 되었다. 문객의 전형적인 모습은 고려 무신정권시대에 등장했던 것이다.<sup>5)</sup> 이 시기 慶大升의 호위부대인 都房은 지도자와 추종자 사이의 신임과 충성을 제도화한 사병운영을 보여준다.<sup>6)</sup> 이후 최씨 무신정권 시기에 문객 제도는 더욱 발달했다. 그런데 본래 왕조정부에서는 사적으로 병력을 소유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군사를 맡은 자가 도리어 叛亂을

2) 金鍾國, 「高麗武臣政權의特質에關一考察」, 『朝鮮學報』 17, 1960, 64쪽

3) 新羅時代에는 자기의 族員을 동원해 조직한 이 집단을 族兵이라고 불렀다(李基白, 「新羅私兵考」,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1974; 盧泰敦, 「羅代之門客」, 『韓國史研究』 21-22합집, 1978, 7쪽). 金陽의 '族兵·謀士·兵卒', 김현창의 '宗族·黨與·其民' 및 '奴童三千人·甲兵'(『新唐書』 권220 신라전) 등의 경우가 도둑과 지방세력 또는 대호족의 세력기반을 뜻한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신라시대 사회의 모순이었으며, 혼란의 소지가 되었다(申滢植, 「新羅軍主考」, 『白山學報』 19, 1975, 97쪽; 鄭承福 外, 『譯註 三國史記』 4 주석편(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708~709쪽).

4) 蔡元, 李義方 등의 지도자들이 암살되었을 때 그가 거느린 병사는 대부분 그와 함께 죽었다. 曹元正 같은 인물은 경호원이나 다름없는 자신만의 수행원 집단을 거느렸다.(Edward J. Shultz 著, 金範 譯, 『무신과 문신』, 글항아리, 2014, 63~64쪽). 李義方, 鄭仲夫, 慶大升은 모두 門客을 거느리고 있었다(柳昌圭, 「사병의 형성과 都房」, 『한국사』 18, 국사편찬위원회, 1993, 130~131쪽).

5) 金鍾國은 李義方, 李義敦, 鄭仲夫, 慶大升 등은 門客을 招致할 충분한 자격을 지니고 있으며, 慶大升의 都房 무사들을 門客으로 파악했다(金鍾國, 앞의 논문, 1960, 56~57쪽).

6) Edward J. Shultz 著, 金範 譯, 위의 책, 2014, 64쪽.

일으킬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sup>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군사조직으로 운용된 것이 고려무신정권시기의 문객이다.<sup>8)</sup>

문객을 다룬 연구는 대체적으로 崔氏武臣政權 확립 이후의 상황을 다룬 부분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어 왔다. 먼저 문객을 家兵과 동일한 집단으로 보는 연구가 나왔다.<sup>9)</sup> 이후 도방과 문객을 별개의 것으로 파악한 연구,<sup>10)</sup> 문객이 도방에 모두 편입된 것으로 보는 연구가 있었다.<sup>11)</sup> 그리고 최씨 정권과 무사집단을 다루면서 문객이 최씨 정권에 예속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나왔다.<sup>12)</sup> 이후 문객에 관해서는 최씨 정권과 무신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언급되었다.<sup>13)</sup> 나아가 崔怡 정권에서의 문객은 그가 조직한 사적 기구에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 연구도 나왔다.<sup>14)</sup>

이상의 연구를 통해 최씨 무신정권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의 연구는 몇 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7) 兵權, 國家之大柄, 當有統屬, 不可散主. 散主無統, 是猶太阿倒持, 授人以柄, 難可以制. 故典兵者衆, 各樹徒黨, 其心必異, 其勢必分, 交相猜貳, 以成禍亂. 同氣之相殘, 功臣之不保, 恒由於此, 古今之通患也. 故孔子曰: “古者家不藏甲”, 言無私兵也; 《禮記》曰: “兵革藏於私家, 非禮也. 是謂脅君”(『定宗實錄』卷4, 2年 4月 辛丑 條).

8) 무신정권시기 사적 군사집단의 역할을 하는 사병이란 그 범주가 사실 확실하지 않다. 일 개인에게 종속되어 그로부터 명령을 받고 행동하며, 그로부터 경제적 급부를 받는 사병과 비록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개인에게 사적으로 종속되어 그를 위해 활동하는 사적 성격을 가진 군사가 확실히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신정권 시기의 경우 개인의 조직에 종속되어 그를 위해 사적인 군사활동을 하는 사람 모두를 사병의 범주에 넣고 있다(유창규, 앞의 책, 125~126쪽).

9) 金鍾國, 앞의 논문, 1960.

10) 旗田巍, 「高麗의 武人 崔氏의 家兵」, 『洪淳昶紀念論叢』, 1977.

11) 柳昌圭, 「崔氏武人政權下の 都房의 설치와 그 向方」, 『東亞研究』 6, 1985; 洪承基編, 『高麗武人政權研究』,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5.

12) 鄭杜熙, 「高麗武臣執權期の 武士集團」, 『韓國學報』 8, 1977.

13) 金塘澤, 『高麗의 武人政權』, 국학자료원, 1999.

14) Edward J. Shultz, “Generals and Scholars: Military Rule in Medieval Korea”, University of Hawaii Press(Honolulu, 2000). 저자는 고려에서의 門客과 鎌倉(가마쿠라) 幕府의 御家人(고케닌)을 비교했다. 고려에서의 문객은 가마쿠라 막부의 고케닌이 누렸던 자치를 얻지 못했고 자신의 주군에게 긴박되었음을 밝혔다.

여겨진다. 첫째는 문객집단의 구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충헌의 측근이었던 崔忠粹, 朴晉材 등이 자신의 문객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들 또한 최충헌 휘하의 문객이었다. 이 점에 주목하여 Ⅱ장에서 최충헌 집권기 문객집단의 구조와 성격을 다룰 것이다.

둘째는 문객집단의 구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점이다. 문객집단의 구성은 최충헌에서 최이로의 권력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었다. 이 점을 정리한 것이 Ⅲ장 崔怡의 龔權과 門客集團의 再編이다. 여기서는 최이가 설치한 政房·書房과 관련해서 문객이 편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Ⅳ장에서는 崔沆·崔竑의 龔權과 門客集團의 役割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문객집단의 向方이 최씨 정권의 습권과 몰락에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이러한 검토가 최씨 무신정권시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2. 崔忠獻 執權期 門客集團의 構造와 性格

崔忠獻은 1196년(明宗 26) 李義旼을 제거하고 집권했다. 그는 그의 아우 崔忠粹, 그리고 甥姪 朴晉材, 친척 盧碩崇 등과 함께 李義旼을 제거하면서부터 무인집권시기의 권력자로 자리 잡았다. 최충헌은 이의민을 제거한 이후에도 자신들의 직속 군사를 편성하여 중앙에 남아 있는 이의민 세력을 제거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sup>15)</sup> 최충헌 일파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거느리게 된 군사들은 이의민 세력을 제거한 이후 崔忠獻 일파의 정권이 공고해지면서 더욱 정비되었던 것 같다. 최충수, 박진재, 노석송 등은 그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인물로서 최충헌의

15) 이와 관련해서는 金大中, 「崔忠獻의 執權과 京軍」, 『軍史』 65, 2007 참조.

상층 문객집단이라고 이해된다.

A-1. 최충헌, 최충수는 박진재·노석승 및 그의 族人 김약진 등과 함께 군사를 저자 거리에 집결시켜 中軍으로 삼고, 각 衛의 군사를 左軍·右軍·前軍·後軍으로 나누어 네 군데에 진을 치게 했다 …(중략)… 최충헌과 최충수는 군사를 데리고 樞密院으로 들어가서 각 위의 將軍들에게 명령해 毬庭에 주둔시키고 최충헌이 왕에게 건의해 內侍 閔湜 등 70여 명을 내쫓았다.<sup>16)</sup>

A-2. 밤 3경에 崔忠獻은 무리 1천여 명을 거느리고 高達고개를 지나 광화문에 이르러 …(중략)… 崔忠粹가 승낙하고 이른 새벽에 무리 1천여 명을 거느리고 십자가에 진을 치고는 “마땅히 힘을 합하여 싸워야 될 것이며, 저 무리를 죽인 사람에게는 마땅히 죽은 자의 관직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충수의 군사들은 장수들이 모두 최충헌의 편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원군이 부족함을 알아차리고 슬금슬금 도망갔다. 최충헌은 廣化門을 나와 시가지를 향해 내려 오고, 최충수는 광화문을 향해 올라오다가 興國寺의 남쪽에서 서로 부딪쳐 교전했다. 박진재·김약진·노석승은 각자 수하를 거느리고는 泥峴과 沙峴과 高達고개를 각각 넘어 대오를 유지한 채 앞뒤에서 최충수의 군사들을 공격하였다. 최충헌의 군사들이 御庫에서 내어온 大角弩를 비 퍼붓듯 쏘아대자 최충수의 부대는 회랑의 문짝을 뜯어다가 방패로 삼아 화살을 막았으나, 견뎌내지 못하고 마침내 참패했다.<sup>17)</sup>

위의 사료 A군은 최충헌 일파가 이의민 세력을 제거하고 집권한 지 1년이 지난 이후, 최충헌 측근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A-1에 의하면 최충헌·최충수를 비롯해 박진재·김약진·노석승 등이 자신들의

16) 忠獻·忠粹, 與晉材·碩崇及其族人金躍珍等, 勒兵市街, 爲中軍, 分諸衛兵, 爲左右前後軍, 屯于四街. … 忠獻·忠粹擁兵, 入樞密院, 令諸衛將軍, 屯于毬庭. 忠獻奏, 黜內侍閔湜等七十餘人(『高麗史』 권129, 열전42, 반역3, 崔忠獻).

17) 夜三鼓, 忠獻率兵千餘, 由高達坂, 至廣化門, … 忠粹許之, 黎明率兵千餘人, 屯十字街. 約曰, “戮力以戰, 苟殺彼黨者, 當授所殺者職!” 忠粹軍聞諸將皆歸忠獻, 自知寡助, 稍稍遁去. 忠獻出廣化門, 向市街而下, 忠粹向廣化門而上, 遇於興國寺南交戰. 晉材·躍珍·碩崇, 各率徒衆, 一踰泥峴, 一踰沙峴, 一踰高達坂, 首尾相應, 腹背攻之. 忠獻以御庫大角弩縱射, 矢下如雨, 忠粹之徒, 取步廊扉板爲楯, 禦之不克, 遂大潰(『高麗史』 권129, 열전42, 반역3, 崔忠獻).

군사를 中軍으로 하고, 여러 衛의 군사로 하여 左·右·前·後의 4軍이 되도록 하여 5軍을 편성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최충헌 일파가 보유한 군사 수의 증가는 물론, 지휘체제 또한 정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A-2는 최충헌이 그의 동생 최충수와 대립하는 과정이다. 이에 의하면 최충헌, 최충수, 박진재, 김약진, 노석승 등이 각각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특히 최충헌과 최충수가 거느린 군사는 각각 1,000명에 달했다. 당시 최충헌은 군사를 정비하여 새로운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듯하다. 이는 다음 사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B-1. 최충수가 (국왕과 여러 장군들이 충헌을 도운다는 사실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 무리에게 말하기를 “아우가 형을 공격하는 것은 윤리에 어긋나는 짓이다.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구정으로 들어가서 형을 만나 뵈고 사죄하겠으니 너희들은 각각 도망하여라.”고 하였다. 그러자 將軍 吳淑庇·俊存深·朴挺夫 등이 말하기를 “저희들이 공의 문하에서 놀았던 것은 공께서 세상을 덮을 만한 기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도리어 겁냄이 이와 같으니 이는 저희들을 멸망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청컨대 일전하여 승패를 가려주소시오”라고 하였다.<sup>18)</sup>

B-2. 朴晉材는 門客이 무려 수백 명인데 그중에 神騎指諭 李勤中이란 자와 金俊瑠가 가장 친했다. 李勤中이 은밀히 金俊瑠를 불러서 변란을 일으키고자 하였다.<sup>19)</sup>

B-3. 이보다 먼저 어떤 사람이 익명의 방을 붙여 이르기를 “장군 박진재가 외숙인 최충헌을 제거하려 한다”고 하였다. 이로 양가에 두 집 사이는 틈이 생기었다. 이에 이르러 박진재가 대장군이 되었는데, 문객의 수가 최충헌과 거의 비슷했으며, 모두 용감하고 사나웠다. 박진재는 자기의 문객들에게

18) 忠粹聞之，懼謂其衆曰，“以弟攻兄，是謂悖德。吾欲奉母入毳庭，見兄乞罪，汝等宜各遁去。”將軍吳淑庇·俊存深·朴挺夫等曰，“僕等所以遊公之門者，以公有蓋世之氣。今反怯懦如此，是族僕等也。請一戰以決雌雄。”(『高麗史』 권129, 열전42, 반역3, 崔忠獻).

19) 晉材門客，無慮數百，有神騎指諭李勤中者，最親昵，勤中密召俊瑠，欲作亂(『高麗史』 권129, 열전42, 반역3, 崔忠獻).

벼슬을 적게 준다고 항상 불평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술이 취하면 문득 최충헌의 무례함을 말하였다. 또 스스로 이르기를 만약 최충헌이 없다면 국권을 독차지할 수 있다고 보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말을 퍼뜨리기를 “외숙은 임금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했으며, 매번 문객들에게 이르기는 “어찌 한때의 영화가 없겠느냐”고 하였다. 최충헌은 박진재가 반드시 자기를 해할 것을 알았다. 최충헌은 그가 반드시 자신을 해칠 것이라 짐작하고 박진재를 불렀다. 박진재가 섬돌 아래에서 인사를 올리자 최충헌이 앞으로 오라고 하고서, “자네가 어찌 나를 해치려고 하는가?”라고 꾸짖고는 좌우에 명령하여 그를 결박하고 그의 다리 힘줄을 끊어 白翎鎭으로 유배 보냈더니, 수개월 만에 병사하였다. 문객의 용감하고 날쌌던 자들은 모두 먼 섬에 나누어 유배 보냈다. 그 곳에서 수개월 있다가 병을 죽었다. 또 그의 문객 중에서 용맹스러운 자들은 먼 섬으로 분산해서 유배 보냈다.<sup>20)</sup>

위의 사료 B군은 최충헌의 측근이었던 최충수와 박진재가 문객을 거느리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최충헌은 정권을 장악하는 데에 커다란 공을 세운 그의 군사들을 문객집단으로 형성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충수와 박진재는 최충헌의 상층 문객집단으로 여겨진다. 최충헌은 이들 휘하에 문객집단을 거느리도록 하여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했다. 즉 상층 문객인 최충수, 박진재 휘하에 중층·하층 문객집단이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들 상층 문객 중 일부는 최충헌과 대립하게 된다. 먼저 사료 B-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최충수와 그의 무리들이 최충헌과 대립하기에 이르렀다. 최충헌이 이의민을 제거한 이후 가장 강력한 정적으로 등장한 인물은 그의 동생 최충수였다.<sup>21)</sup> 최충수는 쿠데타 이후

20) 先是, 有人帖匿名榜云, “將軍朴晉材, 謀去舅崔忠獻.” 由是, 兩家構隙. 至是, 晉材爲大將軍, 門客幾於忠獻, 而率皆勇悍. 晉材恨門客除官者少, 常怏怏不平, 酒酣, 輒言忠獻無狀. 且自謂, 若無忠獻, 可專國柄, 欲圖之, 流言曰, “舅氏有無君心.” 每語門客曰, “寧無一日之榮乎?” 忠獻知其必害己, 召晉材. 晉材謁於階下, 忠獻呼使前曰, “汝何欲害我?” 遂命左右縛之, 斷其脚筋, 流白翎鎭, 居數月病死. 分配門客勇悍者于遠島(『高麗史』 권129, 열전42, 반역3, 崔忠獻).

21) 崔忠粹가 자신의 딸을 納妃하기도 했고, 이것이 崔忠獻과 권력쟁탈전으로 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崔忠獻과 崔忠粹의 관계를 대등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최충헌이 정치적인 주도권을 장악한 데 대한 불만으로 그의 형에게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최충헌과 최충수의 본격적인 마찰은 최충수가 그의 딸을 태자비로 들이려한 것을 계기로 권력쟁탈전의 양상을 띠었다. 이 쟁탈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없음을 실감한 최충수는 최충헌과의 싸움을 포기하려 했다. 그러나 將軍 吳淑庇·俊存深·朴挺夫 등은 이를 반대했다. 최충수는 최충헌에게 잘못을 빌고자 한다고 그의 ‘무리’에게 알렸는데, 장군 오숙비 등이 이에 반대하며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최충수의 ‘무리’는 왜 최충수의 ‘門’에 모였을까? 이는 오숙비 등이 지적한 것처럼, 그가 ‘세상을 덮을 만한 기개’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세상을 덮을 만한 기개’는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sup>22)</sup> 즉 최충수가 정권을 장악한다면, 이들 ‘무리’들도 그들의 정권에서 지위가 향상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최충수에게 있어서 이러한 ‘무리’들은 곧 최충수의 문객이었을 것으로 헤아려진다. 이는 B-1의 사료 가운데 “遊公之門者”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최충헌의 상층 문객인 大將軍 崔忠粹의 휘하에서 충성을 바쳤던 중층 문객이었다고 이해된다. 그런데 이들 오숙비·준존심·박정부는 모두 將軍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私的으로 운용되었다고 보이는 문객집단에 公的인 2軍 6衛의 京軍이 배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B-2에 의하면, 1199년(神宗 2)에 朴晉材는 수백 명에 이르는 門客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런데 박진재는 隊正, 將軍을 거쳐 大將軍에 이르러서는 그의 문객 수가 최충헌과 비슷해질 만큼 규모를 키워 갔다. 최충헌의 상층 문객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박진재는 최충수와 마찬가지로 2군 6위의 경군 소속이었다. 최충헌의 일부 상층 문객은 공적인 정규군의 지휘관들이 이끌었던 셈이다. 또한 박진재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崔忠獻은 崔忠粹 제거 이전에도 執政武人이었다. 따라서 崔忠獻과 崔忠粹의 정치적 위상은 달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2) 김당택, 앞의 책, 1999, 142~143쪽.

문객집단에도 중층 문객들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문객 수백 명 가운데 神騎指諭 李勣中과 金俊踰가 가장 친했다” 기록으로 보아 그러하다. 이적중과 김준거로 대표되는 중층 문객들은 박진재의 하층 문객 집단을 이끌었다고 생각된다.

최충현은 그의 조카였던 박진재의 도움을 바탕으로 그의 정권을 성립시킬 수 있었으므로, 박진재를 통해 자신의 문객을 거느리도록 하여 군사적인 기반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충현 정권이 안정되어감에 따라 이러한 상황은 변할 수밖에 없었다. 외부의 적이 제거된 상황 가운데서 최충현에게 위협적인 존재는 이제 그 내부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박진재는 이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최충현은 이에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결국 최충현은 박진재의 문객에게 관직을 제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문객집단을 통제했다.<sup>23)</sup> 이는 곧 박진재의 세력 확대를 저지하는 것과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박진재는 B-3에서 알 수 있듯이 “외속은 임금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최충현을 비난했다. 또한 “만약 최충현이 없다면 정권을 오로지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최충현을 제거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문객들에게 관직을 적게 준다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는 박진재의 문객들에게 관직을 수여하고, 경제적인 보상을 주는 자가 바로 최충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막대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던 최충현은 박진재와 그의 문객들을 유배 보냄으로써 자신의 위협세력을 제거했다.

최충현의 族人 김약진도 상층 문객의 하나였다. 그는 최충현이 최충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中軍을 맡아 공을 세웠던 인물이다.<sup>24)</sup> 상층 문객으로서 최충현에게 충성을 다한 그는 1211년(熙宗 7)에 熙宗이 최충현을 살해하려고 했을 때에 상장군이였다. 그는 重房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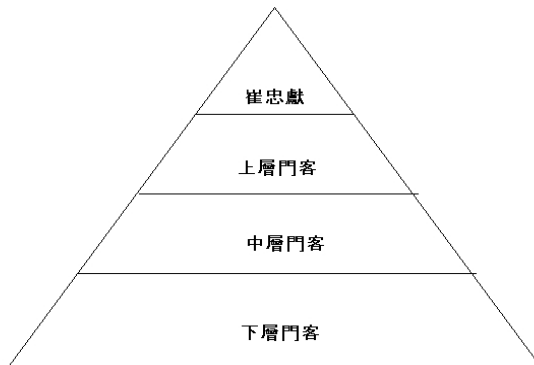
23) 김당택, 앞의 책, 1999, 144쪽.

24) 忠獻·忠粹, 與晉材·碩崇及其族人金躍珍等, 勒兵市街, 爲中軍, 分諸衛兵, 爲左右前後軍, 屯于四街(『高麗史』 권129, 열전42, 반역3, 崔忠獻).

있다가 변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듣고 즉시 궁궐 안으로 들어가 최충헌을 부축해 나감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sup>25)</sup> 김약진 또한 상장군에 이르렀다는 기록으로 보아 하층 문객집단을 이끄는 중층 문객이 존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노석승도 최충헌의 상층 문객으로 여겨진다. 최충헌의 측인이었던 그는 최충헌이 이의민을 제거할 때에 행동대장으로서 커다란 공을 세웠다.<sup>26)</sup> 그는 최충헌과 함께 칼을 감추어 가지고 별장문 밖에 가서 엿보고 있다가 이의민을 제거하는데 함께 했다. 이어 이의민의 首級을 가지고 수도 개경으로 달려와서 시가에 梟首했던 인물이다. 최충헌의 집권에 크게 기여했던 상층 문객 노석승 또한 김약진과 같이 하층 문객집단을 이끄는 중층 문객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문객의 구조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門客集團의 構造



25) 時, 忠獻族人上將軍金躍珍, 瑀舅知奏鄭叔瞻, 在重房, 聞變卽入內, 扶忠獻以出, 其黨指諭申宣胄, 奇允偉等, 與僧徒相格鬪(『高麗史節要』14 熙宗 7年 12月).  
 26) 忠獻與忠粹及其甥隊正朴晉材, 族人盧碩崇等袖刃, 至別墅門外候之. 義旼將還, 出門欲跨馬, 忠粹突入, 擊之不中. 忠獻直前斬之, 從者數十人, 股弁皆潰. 使碩崇, 持首馳入京, 梟于市, 觀者驚噪聲振都下(『高麗史』 권129, 열전42, 반역3, 崔忠獻).

이처럼 최충헌은 자신의 族人과 黨與들로 상층 문객을 삼았다. 이들은 이른바 族黨으로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자들이었다. 최충수·박진재·김약진 등은 공적으로 2군 6위의 경군 지휘관이기도 했다. 이들 상층 문객은 중층 문객을 두어 하층 문객집단을 이끌었다. 이들 상층 문객 최충수, 박진재, 노석승은 모두 최충헌이 정변을 일으켜 집권하는 과정에서 크게 기여한 인물들이었다.<sup>27)</sup>

그러나 최충헌은 상층 문객들이 자신의 문객집단 세력을 확대하고자 한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하거나, 유배를 보냄으로써 통제했다. 그리고 이들 상층 문객이 보유하고 있는 중·하층의 문객에게도 관직을 제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을 제어했다. 즉 최충헌은 자신을 지지하는 무인은 우대했으나, 자신을 위협하는 무인에게는 더 이상 세력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리고 최충헌은 무인들이 그들의 합의기구를 통해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도 봉쇄했다. 중방의 권한을 약화시킨 것도 이러한 방법의 일환이었던 것이다.<sup>28)</sup>

이러한 문객은 그 주인에게 충성을 바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기대하는 자들이었다.<sup>29)</sup> 그러므로 충성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할 때, 문객은 흩어지기 마련이다. 최충헌이 집권한 후 다른 무인들의 문객에 관한 기록이 많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최충헌이 최충수, 박진재에게 거느리게 한 문객집단은 결국 그들만의 세력을 확대하고자 하여 최충헌의 무력으로 제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충헌은 다른 무인들의 문객 보유를 철저히 통제했다. 그렇다면 최충헌의 문객은 당시 그가 설치한 사적 지배기구와 관련 있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겠다.

27) 金大中, 『崔忠獻 政權 研究』,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40쪽.

28) 金塘澤, 『高麗의 武人政權』, 국학자료원, 1999(重房에 대해서는 羅滿洙, 「高麗 明宗代 重房政治와 國王」, 『國史館論叢』 31, 1992; 金大中, 「高麗 武人執權期 私兵勢力 擡頭와 兵權의 向方」, 『軍史』 26, 1993; 「高麗前期 重房體制的 成立」, 『國史館論叢』 61, 1995 참조).

29) 金鍾國, 앞의 논문, 1960, 64쪽.

C-1. 최충헌은 궁궐을 출입할 때는 평상복을 입고 日傘을 받들었는데, 시종하는 문객이 거의 3천인이었다.<sup>30)</sup>

C-2. (神宗 3년) 충헌이 스스로 방자함을 알고서 변이 뜻밖에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무릇 문·무·양반·군졸 가운데서 강하고 힘센 자들을 모두 招致하여 6番으로 나누고, 날마다 번갈아 그 집에 숙직시켰는데, 이름을 都房이라고 하였다. 그가 출입하면 번을 합하여 옹위했는데, 마치 전쟁터에 나아가는 것과 같았다.<sup>31)</sup>

위의 사료 C-1에서는 최충헌을 시종했던 문객이 거의 3천 명이나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사료 C-2에 따르면 최충헌이 정권을 장악하고 4년 뒤인, 1200년(神宗 3)에 都房이 조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충헌의 측근인 문객들 중 일부가 도방이 조직될 때 편입되지 않았을까? 최충헌이 출입할 때 그를 옹위하는 것이 도방의 중요한 임무였음을 보았을 때, 문객집단은 도방에 편성되어 그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것 같다.<sup>32)</sup> 다만 이들 문객 3천 명 모두가 도방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sup>33)</sup> 최충헌의 문객은 도방의 설치로 일부가 여기에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기존의 문객과는 따로 도방을 조직했다면, 문객을 일괄적으로 통제하고 조직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방이 大小文武官吏·

30) 忠獻出入宮禁，便服張蓋，侍從門客，殆三千餘人(『高麗史節要』14 熙宗 2年 3月).

31) 忠獻自知縱恣，恐其變生不測，凡文武官閑良軍卒，強有力者，皆招致，分爲六番，更日直宿其家，號都房。其出入，合番擁衛，如赴戰陣焉。(『高麗史』권129, 열전42, 반역3, 崔忠獻).

32) 柳昌圭, 앞의 논문, 1985, 387쪽(유창규는 3천 명에 이르는 崔忠獻의 門客集團은 都房에 편입되었다고 보았는데, 門客의 구성원 모두가 都房에 편입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33) 柳昌圭, 위의 논문, 1985, 387~389쪽. 김중국은 崔忠獻의 門客 대부분이 都房에 속했다고 보았다(김중국, 앞의 논문, 1960, 56쪽). 한편 旗田巍는 都房과 門客을 별개의 것으로 파악했다(旗田巍, 『高麗의武人崔氏の家兵』, 『洪淳昶紀念論叢』, 1977, 5쪽). 門客에는 문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반해, 都房은 군인만의 순수한 무력집단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都房의 구성원에 文官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閑良之士·軍卒 가운데 강하고 힘 있는 자를 招致해서 조직되었음을 보았을 때,<sup>34)</sup> 기존의 문객들 중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가려 도방 조직에 편입하지 않았을까 한다.

그런데 최충헌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던 문객은 都房, 敎定都監 등의 최씨 정권 기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도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 이는 다음의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다.

D. 당시 조정에서 장수를 파견하여 거란군을 방어하게 했는데, 용맹한 자들은 모두 최충헌 부자의 문객들인 반면, 관군은 약골로 아무 쓸모가 없었다. …(중략)… 문객들 가운데 官軍으로 從軍하겠다고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먼 섬으로 유배 보냈다.<sup>35)</sup>

위의 사료 D는 문객이 관군으로 종군을 희망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이러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최충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던 그들이 관군으로 종군하고자 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들은 중앙정부와 관련을 맺어 軍功을 세움으로써 관직을 상승시키고자 했던 것 같다. 이들은 도방의 구성원이기는 했지만, 정치적·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을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군공을 세워 정치적·경제적 처우를 보장받고자 했던 듯하다.<sup>36)</sup> 이러한 상황에서 최충헌은 자신의 문객이 종군한다면, 사적 군사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섬으로 유배를 보내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34) 忠獻, 自知縱恣, 恐其變生不測, 大小文武官吏, 閑良之士, 至於軍卒, 強有力者, 竝皆招致, 分爲六番, 更日直宿其家, 號都房, 及其出入, 合番擁衛, 如赴戰鬪焉 (『高麗史節要』 14 神宗 3年 12月).

35) 時遣將禦契丹兵, 驍勇者皆忠獻父子門客, 官軍羸弱不可用 … 門客有請從官軍者, 卽流遠島(『高麗史』 권129, 열전42, 반역3, 崔忠獻).

36) 柳昌圭, 앞의 논문, 1985, 392쪽(柳昌圭는 門客들이 崔忠獻과 사적으로 결합되어 있었지만, 중앙의 임무를 동시에 맡고 있었다는 점을 구조적인 취약점으로 보았다).

최충헌 집권기의 문객집단은 무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sup>37)</sup> 최충헌이 이러한 문객집단을 설치한 목적은 사적 군사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최충헌은 문객집단 중 우수한 인재 가운데 일부를 선발해 도방으로 편입시켰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관군으로 중군하고자 하는 문객도 존재했다. 관군으로 나가는 것이 경제적 처우가 보장되고 안정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崔怡代에는 많은 文士들이 문객집단에 포함되는데, 이는 다음 장을 통해 살펴보겠다.

### 3. 崔怡의 襲權과 門客集團의 再編

1196년(明宗 26)에 집권했던 崔忠獻은 1219년(高宗 6)에 病死했다. 최충헌 정권은 곧 아들에게로 승계되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최충헌이 아들 최이에게 몰래 이르기를, 병이 장차 낫지 않으면 내부에서 변이 일어날까 두려우니, 너는 다시 오지 말라”<sup>38)</sup>고 했던 기록에서 짐작할 수 있다. 최충헌을 추종했던 사람들 모두가 崔怡가 최충헌으로부터의 정권 승계에 찬동하지는 않았던 것이다.<sup>39)</sup> 그 가운데 崔俊文은 최이의 정권 계승에 반대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이다.<sup>40)</sup> 최충헌 정권의 襲權 과정과 관련해서 다음의

37) 정두희는 門客의 구성원은 주로 무사들이었으며, 崔怡代에 이르러서 門客 내에 문사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보았다(정두희, 앞의 논문, 1977, 85쪽).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崔忠獻이 설치한 都房 안에서 활동한 문인들은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었던 것 같다.

38) 九月, 崔忠獻, 有疾, 上表辭職, 及賜姓, 因密謂子瑀曰, 吾病, 將不起, 恐有蕭牆之患, 汝不復來(『高麗史節要』15 高宗 6年 9月).

39) 이에 관해서는 김당택, 앞의 책, 1999, 157~161쪽 참조.

40) 崔怡가 정권을 계승할 무렵 그에 반대한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柳昌圭, 「崔氏武人政權下の 都房의 설치와 그 向方」, 『東亞研究』6, 1985, 393~395쪽; 洪承基

사료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다.

Ⅱ. 최준문은 최충헌의 집 옆에 자기 집을 크게 짓고 용맹한 무관들과 교분을 맺었으며 上將軍 池允深, 將軍 柳松節, 낭장 金德明과 더불어 최충헌의 날개가 되었었는데 최충헌이 병들자 4인이 모의하기를 “주인이 죽으면 우리들은 반드시 최이의 손에 죽을 터인데 주인의 막내 아들 崔珣이 열기가 뛰어나게 있으니 대사를 부탁함직 하다”라고 말하고 최이가 문병하는 기회를 엿보아 죽일 작정으로 사람을 보내서 최이에게 전달하여 말하기를 “주인의 병이 위독하여 당신을 보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이런 전달이 재삼 오니 최이는 점점 더 의심을 품고 가지 않았다 그런데 김덕명이 배신하고 최이에게 그 음모를 고발하니 崔怡는 좋은 말로 위안해 주고 김덕명을 붙잡아 두었다. 그러자 곧 최준문과 지윤심 등이 와서 말하기를 “노대감 병환이 위중하니 속히 가서 보시오”라고 하였다. 최이는 곧 그 2명을 체포하여 柳松節과 함께 먼 섬으로 각각 귀양 보내고 최준문은 도중에서 죽었다.<sup>41)</sup>

최준문은 최충헌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으며, 대장군에 임명되기까지 했다. 최준문은 私邸를 짓고 上將軍 池允深, 將軍 柳松節, 郎將 金德明과 함께 최충헌의 心腹으로서 활동했다. 따라서 이들은 경군이면서 최충헌의 신변 호위를 담당했던 문객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즉 최준문을 비롯한 이 무관들은 최충헌의 문객으로서 도방에 속해 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들은 최충헌이 죽으면 자신들이 반드시 최이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 최충헌의 문객이라면 그의 아들인 최이에게도 신임을 얻기에 충분했을 텐데, 왜 그렇지 못했을까. 그것은 당시 최충헌의 막내 아들인 崔珣이 가장 “열기가 뛰어난”, 즉 실력자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編, 『高麗武人政權研究』,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5.

41) 俊文於忠獻家側, 大營私第, 交結勇士, 與上將軍池允深, 將軍柳松節, 郎將金德明, 爲忠獻羽翼. 及忠獻病, 四人謀曰, “公弃世, 吾輩必爲怡所齏粉. 季子珣, 膽氣過人, 可屬大事.” 因囑怡候疾, 欲除之, 遣人報怡曰, “令公病篤, 欲見公.” 報至再三, 怡愈疑不至. 德明反, 以其謀告怡, 怡慰諭留之. 俄而俊文·允深等至曰, “公疾革, 宜速往候.” 怡卽捕二人, 并松節, 分配遠島, 道殺俊文(『高麗史』 권129, 열전42, 반역3, 崔忠獻 附 崔怡).

최이는 이러한 위기를 최준문으로 대표되는 최충헌 문객들의 분열을 이용하여 국면을 전환시켜 나갔다. 사료에 보이듯이, 최준문과 뜻을 함께 했던 김덕명의 ‘배반’과 첩보제공으로 최이는 정권을 성공적으로 계승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崔怡의 門客도 크게 역할을 했을 것이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어렵게 제거하고 습권한 최이는 자신의 문객집단을 제도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가 집권한 후, 夜別抄·政房·書房 등을 조직하여 문인 문객을 도방이 아닌 정방 혹은 서방에 편성시켰던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sup>42)</sup> 이러한 문객은 최이 정권 시기에 문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F. 최이의 문객에는 당시의 유명한 유학자가 많았는데, 그들을 3번으로 나눠 번갈아 書房에서 숙직케 했다.<sup>43)</sup>

F의 사료에서 언급하고 있는 서방은 최이의 집권기에 처음 나타난 새로운 최씨 정권 기구였다. 이는 정방과 마찬가지로 최이가 신임하여 문객으로 삼은 문신 학자로 구성되었다. 이는 최이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서방에 소속된 인물들은 최씨 정권의 측근으로서 최씨 집정들이 사망했을 때 호위대나 의장대로 활동하기도 했다.<sup>44)</sup> 서방에는 문학적 재능이 있는 인물들이 선발되어 인사 문제를 감독

42) <표 1> 政房의 주요구성원(Edward J. Shultz 著, 金範 譯, 앞의 책, 2014, 128쪽 참조).

이름	입사 경로	최씨와의 관계	관직	이름	입사 경로	최씨와의 관계	관직
金敞	과거	門客	이부	宋國瞻	과거	-	형부
琴儀	과거	-	이부	柳璈	과거	-	국자감
朴暄	과거	門客	형부	兪千遇	과거	門客	이부·병부시랑

정방에 대해서는 金昌賢, 『高麗後期 政房 研究』,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8. 특히 15~70쪽 참조.

43) 怡門客, 多當代名儒, 分爲三番, 遞宿書房(『高麗史』 권129, 열전42, 반역3, 崔忠獻附 崔怡).

44) Edward J. Shultz 著, 金範 譯, 위의 책, 2014, 129쪽.

하기도 했다.<sup>45)</sup> 특히 최이는 이들 학자와 문반 문객을 서방에 모아 국방 문제를 담당하게 했다. 이러한 변화는 무신이 국방 정책을 장악하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무신과 문신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져 감을 의미했다.

이들 문객 중 대표적인 세력으로는 朴暄, 金敞, 俞千遇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최씨 정권의 문객으로서 관직까지 겸했다. 公州 朴氏 출신의 학자 박훤은 과거에 급제하고 최씨 정권기구에 근무했을 뿐만 아니라 형부상서를 지냈다. 安東 金氏 출신의 김창은 천거를 맡았으며, 樞密院에서도 근무했다. 유천우는 長沙縣人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최이의 문객으로서 정방에 참여했다.<sup>46)</sup> 그는 최이 정권 이래로 최씨 정권의 心腹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최이는 측근 세력으로 문객을 두어 그의 정권을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의 핵심으로 만들었다. 그도 최충헌과 마찬가지로 다른 무인들이 문객을 보유하여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금했다.

G. 李子晟이 東京을 평정한 후에 장사들이 매일 그 門에 모여들었다. 자성은 權貴의 꺼려하는 바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병을 청탁하고 문을 닫았다. 사람들이 그 知機를 칭찬하였다.<sup>47)</sup>

李子晟이 東京에서 일어난 亂을 진압한 것은 1233년(高宗 20)이었다.<sup>48)</sup> 이자성이 경주를 평정하자 장사들이 날마다 그 ‘門’에 모여들었다고 한다. 이자성의 ‘門’에 모여든 장사들은 그의 문객이 되려는 자들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자성은 ‘權貴’의 꺼려하는 바가 될 것을

45) 趙仁成, 「崔瑀政權下的 文翰官」, 홍승기 편, 『高麗武人政權研究』,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5, 234~249쪽.

46) 怡曰, “貌雖不揚, 誠可人也.” 置之政房, 遂爲門客(『高麗史』 권105, 열전18, 俞千遇).

47) 子晟自平東京後, 將士日集其門, 恐爲權貴所忌, 謝疾杜門, 人稱知幾.(『高麗史』 권103, 열전16, 李子晟).

48) 五月, 又遣李子晟, 討東京賊, 崔山, 李儒等(『高麗史節要』 16 高宗 2年 5月).

두려워해 그 문을 닫았다. 여기서 말하는 ‘권귀’란 당시의 집권자 최이라고 생각된다. 이자성은 자신에게 문객이 모여드는 것을 최이가 꺼릴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무인들이 문객을 거느리는 것은 정권을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이는 이를 당연히 견제했을 것이다. 최이는 철저히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들 崔沆에게 권력을 승계할 수 있었다.

최이나 최항의 문객들은 도방·서방·야별초 등에 분산되었다.<sup>49)</sup> 야별초에도 그들의 문객이 있었다. 최이의 都房員인 李裕貞은 최이의 문객이자 야별초의 지휘자였다. 이유정은 최이의 도방원이면서 동시에 야별초의 지휘관을 역임했다.<sup>50)</sup> 夜別抄指諭 宋吉儒는 최항을 아침으로 잘 섬긴 인물이었다.<sup>51)</sup> 즉 최씨 집권자들의 문객은 야별초까지도 지휘했다. 崔沆代에 거쳐 崔瑄代에는 문객집단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는 다음 장을 통해 살펴보겠다.

#### 4. 崔沆·崔瑄의 襲權과 門客集團의 役割

최이의 뒤를 이어 집권한 인물은 그의 아들 최항이었다. 그렇다면 최이가 그의 아들 최항에게 권력을 승계할 때, 문객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료가 주목된다.

H. 최항이 첫 벼슬로 左右衛 上護軍 戶部尙書를 하자, 종실과 재추들이 모두 그의 집을 찾아가 축하하였다. 崔怡가 待制 任翹를 시켜 글을 가르치게 하고,

49) 김당택, 앞의 책, 1999, 156쪽.

50) 崔怡, 都房夜別抄都領, 李裕貞, 自請擊賊, 授兵百六十人, 遣之(『高麗史』 권23 高宗 22年 8月 辛亥).

51) 宋吉儒, 性貪酷便佞. 起於卒伍, 高宗時, 諂事崔沆, 爲夜別抄指諭(『高麗史』 권122, 열전35, 宋吉儒).

侍郎 權躋를 시켜 예법을 익혀주게 한 후 樞密院知奏事로 승진시켰으며, 자기 가병 5백여 명을 나누어주었다. 최이가 병이 들자, 최항은 군사를 거느리고 府로 들어갔다가 병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그의 집으로 돌아왔다. 崔怡가 죽자, 知吏部事·上將軍 周肅이 야별초 및 내외의 도방을 지휘하면서 정권을 왕에게 돌려주려고 했으나 망설이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에 殿前 李公柱·崔良伯·金俊 등 70여 명이 崔沆 편에 서자 周肅도 결국 그 편에 붙게 되었다.<sup>52)</sup>

H의 사료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최이는 최항에게 家兵 5백여 명을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최항이 정권을 승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최이가 사망하자 將軍 周肅은 夜別抄와 내외의 도방으로 정권을 왕에게 돌려주려 했다. 최이로부터의 정권 승계가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李公柱·崔良伯·金俊 등 70여 명이 崔沆 편에 섬으로써 해결되었다.<sup>53)</sup> 이들은 모두 가병 70여 명을 대표하는 가병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sup>54)</sup> 동시에 최씨가의 문객이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문객의 일부는 가병의 역할도 수행했다고 보여진다.<sup>55)</sup>

52) 沆, 初拜左右衛上護軍戶部尚書, 諸王·宰樞, 皆詣門賀. 怡使待制任翊授書, 侍郎權躋習禮, 遷樞密院知奏事, 怡分與家兵五百餘人. 及怡病, 沆領兵入府, 聞病殆, 卽還其家. 怡死, 知吏部事上將軍周肅, 領夜別抄及內外都房, 欲復政于王, 猶豫未決. 殿前李公柱·崔良伯·金俊等七十餘人, 歸于沆, 肅亦附焉. (『高麗史』 권129, 열전42, 반역3, 崔忠獻 附 崔沆).

53) 이들은 崔怡代에 입신한 家奴들이다.(洪承基, 『高麗 崔氏 武人政權과 崔氏家の家奴』, 『高麗貴族社會와 奴婢』, 일조각, 1983 282쪽).

54) 홍승기도 이들이 최이가 최항에게 물려준 가병이라고 보았다(홍승기, 위의 책, 1983, 291쪽).

55) 이에 관해서는 崔氏 家の 門客이 家兵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김종국, 앞의 논문, 1960, 59쪽). 그러나 家奴들로 구성된 家兵이 따로 존재한 경우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홍승기, 위의 책, 1983, 289~291쪽). 김당택은 이러한 家兵이 곧 門客의 일부인가 아니면 별개인가는 단정 짓기가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두 집단이 별개의 존재였다 하더라도 그 기능적인 면에서는 門客과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고 했다(김당택, 앞의 책, 1999, 156쪽). 이후 姜在光은 崔氏 家の 家兵은 사병조직 전체가 아니라 家奴集團, 門客 일부, 國人 가운데 모집자로 구성된 사병의 일부라고 보았다(姜在光, 『崔氏武人執權期 金俊·崔良伯 勢力的成長과 對立 - 家奴 출신 政治人的 役割과 崔氏家の 崩壞를 중심으로 -』 서강대

이제 최항의 문객이 최의가 권력을 세습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을까 검토해 보자. 이와 관련한 다음의 사료를 살펴보겠다.

1. 최항이 일찍이 최의를 宣仁烈과 柳能에게 맡기면서, “만약 그대들이 이 아이를 잘 인도해서 장성한 후 가업을 계승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그대들의 덕분이다.”라고 말했다. 崔沆이 병들자 다시 선인열과 유능을 불러서 손을 잡고, “그대들이 이 아이를 보호해 준다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당부했다. 최항이 죽자, 殿前承旨 崔良白은 그의 죽음을 비밀에 붙여 알리지 않았으며, 칼자루를 잡은 채로 시종하는 여종을 단속해 곡소리를 내지 못하게 한 후, 宣仁烈과 함께 모의해 崔沆의 말을 門客들에게 전달하였다. 大將軍 崔瑛·蔡楨 및 柳能 등이 夜別抄·神義軍과 書房 3番·都房 36번을 모아 호위하는 가운데 초상이 났음을 알렸다. 왕이 즉시 崔楨을 借將軍으로 임명한 후, 또 명령을 내려 敎定別監으로 삼자, 백관들이 그의 집으로 가 조의와 축의를 표했다.<sup>56)</sup>

최항은 宣仁烈과 柳能에게 최의가 권력을 계승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sup>57)</sup> 이들은 최항의 측근으로 그의 문객이었다고 생각된다. 이후 선인열이 門客 大將軍인 崔瑛과 蔡靖 등에게 崔沆의 말을 전했는데, 권력 세습 가운데 문객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선인열과 최영·채정 등이 최의를 옹위하자, 국왕이 최의를 敎定別監에 임명했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이는 국왕이 최의를 교정별감에 임명한 것이 문객의 그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했음을 알려주기

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48쪽). 필자는 문객집단 가운데 일부가 家兵에 속했다고 본다.

56) 沆嘗以嬪, 屬宣仁烈·柳能曰, “若輔導成就, 獲承家業, 則君等之賜也.” 及沆病, 召仁烈·能, 執手曰, “君等保護此子, 吾死無恨矣.” 沆死, 殿前崔良白, 秘不發喪, 按劔叱侍婢勿哭, 與仁烈謀, 以沆言, 傳于門客. 大將軍崔瑛·蔡楨及能等, 會夜別抄·神義軍·書房三番·都房三十六番, 擁衛乃發喪. 王卽授楨借將軍, 又命爲敎定別監, 百官皆詣門弔賀(『高麗史』 권129, 전42, 반역3, 崔忠獻 附 崔楨).

57) 崔沆의 門客인 崔瑛과 蔡靖은 모두 大將軍이었으며, 崔楨은 그 이후에야 借將軍에 오를 정도로 낮은 직위에 있었다. 崔楨은 崔沆의 門客보다 지위가 낮았던 것이다. 이로 보아 崔氏 家의 門客 내부에서는 공적인 지위보다는 사적인 지위가 중시되었던 것 같다(김당택, 앞의 책, 1999, 155쪽).

때문이다.<sup>58)</sup> 즉 최항 문객의 동의로 최의가 집권자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최영과 채정은 어떤 인물인가? 최항이 죽었을 무렵 대장군으로서 야별초·신의군·서방·도방 등을 지휘했던 것으로 보아 평소 이들은 도방의 지휘권을 갖고 있었던 인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최영과 채정은 최항의 문객 출신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어떠한 인물인지는 채정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다. 채정의 아버지 蔡松年은 御前行首로서 郎將(정6품)에 보임되어 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최충헌의 발탁에 의해 參知政事(정2품)로 승진했다.<sup>59)</sup> 채정이 최씨가문의 문객이 되어 최씨집정의 호위를 담당했던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 이지 않을까 한다.

최항 문객의 일부분은 최의를 중심으로 다시 결속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들은 최항에게 충성을 바치고 그 대가를 바라는 자들이었다. 즉 최항을 통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누리운 세력이다. 최항의 사후에도 그들은 최항의 가계를 잇는 자를 통해 그들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했을 것이다. 한편 최항이 최의로 하여금 가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결국 정권의 장악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그가 말한 가업의 계승이란, 최의가 중심이 되어 문객이 단합해 달라는 뜻으로 파악된다. 최의가 최항 문객의 구심점이 되면, 정권을 자연스레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최의가 최항을 이어 그 권력을 승계하는 일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이는 최의가 최충헌의 정권을 승계할 때 자신에게 적대적인 세력을 제거하고 자신의 세력을 구축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띤다. 첫째, 최항은 정권을 승계할 때 문객들에게 최의의 정권 승계를 간곡히 부탁했다. 이를 통해 최항 정권의 문객이 최의

58) 김당택, 위의 책, 1999, 153~156쪽.

59) 忠獻義之, 尋拜父參職. 松年由是, 爲忠獻所重, 累歷樞密承宣御史大夫參知政事(『高麗史』 권102, 열전15, 蔡松年).

정권의 문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알 수 있지만, 최의의 정권 승계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둘째, 최항이 사망하자 야별초·신의군과 서방 3番·도방 36番에 의해 최의가 옹위된 후에야 최항의 죽음이 알려졌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반대세력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최항의 문객은 최항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면, 최의가 정권을 승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이 난을 일으킬까 두려웠던 것이다. 즉 최의는 최항의 권력을 승계할 때부터도 그 지위가 매우 흔들렸다. 『高麗史』의 최의에 대한 기록은 “그가 나이가 어리고 용렬했으며 현명한 선비들을 예우하지 않았으며, 친하고 믿는 사람들은 柳能·崔良伯 같은 무리로서 모두 무능하고 경솔했다”고 한다.<sup>60)</sup> 이로 보아 최의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그와 그의 門客 사이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J-1. 최항이 습권하여서 별장으로 임명하고 더욱 신임하였다, 최항이 죽자 최의가 崔良伯과 柳能만 신임하고 金俊을 멀리하자 김준은 내심 불만을 품게 되었으며, 宋吉儒가 패망하게 되자 더욱 최의를 의심하게 되었다. 高宗 45년 (1258), 柳暉·朴松庇 등과 함께 최의를 죽이고 정권을 왕에게 돌려주었다.<sup>61)</sup>

J-2. (宋吉儒는) 또 혹시 백성들이 재산이 가까워 떠나기를 주저할까 염려한 나머지 백성들의 가옥과 재물과 錢穀을 불태워 버리니 죽는 자가 열에 여덟이나 아홉은 되었다. 또 남의 토지와 재물을 끝도 없이 탈취하자 按察使 宋彦庠이 都兵馬使에 탄핵하는 보고를 올렸다. 그러자 그 일당 金俊 등이 大司成 柳暉과 待制 柳能에게, “宋吉儒는 저와 친한 사이입니다. 소문에 按察使의 탄핵 보고서가 이미 都堂에 전달되었다던데 갑자기 그 글이 공표되면 구원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장차 기회를 틈타 宋公에게 아뢰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니 제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고 몰래 청탁하였다. 영공이란

60) 堯年少暗劣，不禮遇賢士。所與親信者，如柳能·良伯之輩，皆庸隸輕躁(『高麗史』 권129, 열전42, 반역3, 崔忠獻 附 崔堯)。

61) 及沆襲權，補別將，益親信，沆死，堯獨任崔良伯·柳能，而踈俊，俊心不平。及吉儒之敗，益相疑貳。高宗四十五年，與柳暉·松庇等，誅堯，復政于王(『高麗史』 권130, 열전 43, 반역4, 金俊)。

최의를 가리킨 것으로, 유경 등은 김준 형제가 최의와 친근히 지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밀히 도당의 서리더러 그 보고서를 올리는 일을 중지하라고 지시하였다. 최의의 외삼촌인 巨成元拔이 그 소문을 듣고 최의에게 알리자 최의가 노하여 송길유를 楸子島에 유배 보내고 유경·유능·김준 등에게, “내가 너희들을 심복으로 신임하는데 어찌 너희 멋대로 이처럼 행동하느냐?”고 꾸짖으니 모두 엎드려 용서를 빌었다.<sup>62)</sup>

J군의 사료는 최이 때부터 최씨 정권의 문객으로 활동했던 金俊에 관련된 기록이다. J-1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최의 대에 그의 심복으로서 활동했던 김준이 최의에게 불만을 품었다는 것이다. 이는 최의가 김준을 멀리하고, 최양백과 유능만 신임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의는 왜 김준을 신임하지 않았을까? 이는 J-2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본래 김준은 최의의 심복이었으나, 송길유의 비행을 은폐한 일로 인해 최의의 노여움을 샀던 것이다. 최씨 집정자와 문객간의 관계는 신임과 충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즉 집정자는 문객을 신임하고, 문객은 집정자에게 충성과 봉사로 이에 대응하는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가 어느 한쪽에서라도 소홀해질 때, 양자 사이의 관계는 깨지기 마련인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鷹揚軍이 최의 대에 와서는 정변에 가담했다는 것이다.<sup>63)</sup> 특히 왕실호위군인 응양군의 상장군인 朴聖梓는 최항 집권기에 최씨 정권의 문객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九曜堂을 짓는 공사를 맡으며 최항의 측근으로 활동하기도 했다.<sup>64)</sup> 그런데

62) 又慮民愛財重遷, 火其廬舍錢穀, 死者十八九. 又奪人土田財物, 脣削無厭. 按察使宋庠, 劾報都兵馬使. 其黨金俊等, 私謂大司成柳璈·待制柳能曰, “吉儒吾所善. 聞按察劾書, 已至都堂, 若遽發, 勢難營救. 吾將乘間白令公, 庶可免, 願圖之.” 令公指崔埴也. 璈等以俊兄弟昵於埴, 不得已陰戒堂吏停稟. 埴舅巨成元拔, 聞之以告, 埴怒流吉儒于島, 罵璈·能·俊等曰, “吾以爾輩爲腹心, 何專擅若是耶?” 皆俯伏待罪(『高麗史』 권122, 열전35, 宋吉儒).

63) 金大中, 『崔忠獻 政權 研究』,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2, 144쪽.

64) 又令門客朴成梓爲督役使, 凡百之費, 皆出私儲, 不日功畢, 制度得宜, 誠罕世大功

夜別抄가 국방의 친위를 담당하면서 응양군의 상장군으로서의 박성재의 지위는 물론 최씨 집정자에 대한 자신의 입지도 좁아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그는 김준이 일으킨 정변에 가담했다. 그러나 이들은 정변을 일으켜 최의와 유능, 최양백 등 그의 측근을 암살했다.<sup>65)</sup>

최씨 정권기 문객집단은 최씨 집정자에 대한 충성과 봉사로 그들의 기반을 유지했다. 이들은 국가의 관료이기도 했으며, 최씨 가에 기속하며 최씨 정권의 측근으로서 활동했다. 그러나 이는 최씨 정권 내부의 취약점을 말해주기도 한다. 이들은 사적 기구에도 속해 있지만, 공적 임무를 맡기도 하여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최씨 정권 전체에 대한 충성을 바친 자들이라고 볼 수 없다. 새로운 집정자가 등장할 때마다 그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거나 위협적인 인물로 간주되었을 때에는 바로 숙청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최의 대에 이르면, 최씨 정권의 문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변에 가담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최씨 정권은 그들 자신이 조직한 집단과 제도에 의해 몰락하게 되었다.

(『高麗史』 권129, 전42, 반역3, 崔忠獻 附 崔沆).

65) 金俊은 家奴이자 崔沆政權의 측근으로 활동했다. 崔沆 代에는 別將, 崔埴 代에는 장군으로 임명받았다. 李公柱는 崔怡의 家奴로서 활동하다가 崔沆으로 하여금 정권을 잇게 하여 別將으로 임명받았다. 이후 崔埴에 의해 郎將으로 발탁되었는데, 이는 참직(6품 이상의 벼슬)에 임용된 것이다. 이들은 家奴 출신이면서 공직에 올라 임무를 수행했다.

## 5. 맺음말

최씨 무신정권의 문객집단은 崔忠獻으로부터 崔怡를 거쳐 崔沆, 崔埴에 이르기까지 4대 62년 동안 존속되었다. 최씨 정권은 자신의 지위를 보호하고, 무력으로 자신의 계획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에서 측근 세력 집단인 문객을 양성했다. 이들은 崔氏 家에 기속하며 그 정권을 호위하며, 대가를 바라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최씨 무신정권시대의 문객은 집정자의 운용방향에 따라 그 구성도 달랐다.

최충헌은 자신의 族黨(族人·黨與)이거나 公的인 2軍 6衛의 京軍 지휘관들을 상층 문객으로 삼았다. 상층 문객은 崔忠粹, 朴晉材, 金若珍, 盧碩崇 등이었다. 이들은 문객들을 거느리면서 최충헌에게 충성을 바쳤다. 또한 최충수는 吳淑庇·俊存深·朴挺夫 등과 같은 경군 소속의 將軍들을 중층 문객으로 하여 하층 문객집단을 이끌게 했다. 장군을 거쳐 대장군에 이르러서는 문객 수가 최충헌과 비슷해질 만큼 규모를 키웠던 상층 문객 박진재도 神驕指諭 李勤中과 金俊踰와 같은 인물들을 중층 문객으로 삼았다. 이적중과 김준거로 대표되는 인물들 역시 박진재의 하층 문객집단을 이끌었다.

그러나 상층 문객 가운데 최충수와 같이 휘하의 문객을 동원하여 최충헌의 권력에 도전을 한 경우에는 그를 제거했다. 또한 박진재와 같이 하층 문객들을 이용하여 세력을 확대하고자 한 경우에는 유배 등을 통해 무력 확장을 통제했다. 또 상층 문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하층 문객에게 관직을 제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을 제어했다. 즉 최충헌은 자신을 지지하는 무인은 우대했으나, 자신을 위협하는 무인에게는 더 이상 세력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는 기존의 문객들 중에서 일부 우수한 인재들을 가려 다른 사병조직인 都房 조직에 편입했다.

이후 최충헌의 권력을 승계한 최이는 최충헌의 문객 중 다수를

유배 보내고 자신이 신임할 수 있는 인물을 등용했다. 특별히 이 시기에는 많은 문사들이 문객집단에 포함된다. 그는 집권한 이후, 夜別抄·政房·書房 등을 조직하여 문인 문객을 도방이 아닌 정방 혹은 서방에 편성시켰다. 이들 문객 중 대표적인 세력으로는 朴暄, 金敞, 俞千遇를 들 수 있다. 최이나 최항의 문객들은 도방·서방·야별초 등에 분산되었다. 야별초에도 그들의 문객이 있었다. 최이의 도방원인 李裕貞은 최이의 문객이자 야별초의 지휘자였다. 夜別抄筆論 宋吉儒는 최항을 아첨으로 잘 섬긴 인물이었다. 이유정은 최이의 도방원이면서 동시에 야별초의 지휘관을 역임했다. 즉 최씨 집권자들의 문객은 야별초까지도 지휘했다.

최의가 최항을 이어 그 권력을 승계했지만, 이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는 최의가 최충헌의 정권을 승계할 때 자신에게 적대적인 세력을 제거하고 자신의 세력을 구축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띤다. 최항은 정권을 승계할 때 문객들에게 최의의 정권 승계를 간곡히 부탁했다. 이를 통해 최항 정권의 문객이 최의 정권의 문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알 수 있지만, 최의의 정권 승계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둘째, 최항이 사망하자 야별초·신의군과 서방 3번·도방 36번에 의해 최의가 옹위된 후에야 최항의 죽음이 알려졌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반대세력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최의는 최항의 권력을 승계할 때부터도 그 지위가 매우 흔들렸다. 결국 최의는 최씨 정권의 강력한 문객이었던 金俊, 朴聖梓 등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로써 4대에 걸친 최씨 정권은 붕괴되었다.

최충헌 집권기 때부터 집정자의 측근으로 활약했던 문객집단은 집정자가 사망할 때마다 그 취약점을 드러냈다. 최씨 집정무인의 襲權 때마다 집정무인에게 위협적인 인물로 간주되었던 문객은 제거되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객집단 모두가 최씨 무신정권에 한결같이 충성을 바쳤던 것은 아니었다. 최씨 가는 문객집단을 私적으로 운영

하면서도 公的인 京軍과 夜別抄의 지휘관 등을 배치하여 정권을 유지했지만, 결국 崔瑄代에 이르러서 자신들이 조직했던 문객집단에 의해 붕괴되었다.

[원고투고일: 2014.12.30, 심사수정일: 2015.2.22, 게재확정일: 2015.2.24]

주제어 : 문객, 가노, 최충헌, 박진재, 최우(최이), 최항, 최의, 도방, 정방, 서방

<ABSTRACT>

The military regime of Choi's family and the political power supporting group(retainers) called 'Mungaek' in goryeo dynasty.

Kim, Seon-ah

During the military regime in Goryeo Dynasty, the most notable political group was the Choi's family through the four generations. The Choi's family group had led the era of the Goryeo military regime by long-term seizure of power. For their seizure of power, the Mungaek, a group of entourag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aking powers of the Choi family because the family trained a group of aides in order to utilize the them for protecting the Choi's regime and supporting their plan by military force. The Mungaek(retainers) can be defined as people who lodged in the Choi family, guarded the regime for hoping compensations in return. The Mungaek(retainers) actually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reign of the Choi family.

It seemed that Choi Chung-heon categorized his aides into three classes, the upper, middle and low Mungaek(retainers), and let the upper group control the others. For example, Choi Chung-heon commanded the middle and low Mungaek(retainers) through members of the upper Mungaek (retainers) such as Choi Chung-su, Park Jin-jae, Kim Yak-jin and No Seok-sung. However, Choi Chung-heon prevented the upper Mungaek (retainers) from taking other groups in order to expand their own power by using force or sending them into exile. Further, Choi Chung-heon did not give governmental posts to the middle and low Mungaek(retainers) to control them. In other words, Choi Chung-heon gave preference to military groups who supported him, but contained the expansion of rival groups' power in this way. He seemed to select outstanding individuals from existing Mungaek(retainers) and enrolled them on the Dobang

(residence reinforcements).

Choi-u who succeeded Choi Chung-heon sent the majority of Choi Chung-heon's Mungaek(retainers) into exile, and replaced them with the people who were trustworthy to him. In particular, many of literati joined the Mungaek(retainers). After Choi-u seized the power, he organized various Mungaek(retainers) groups such as Yabeolcho(Night Patrol), Jeongbang(the Supreme Military Council) and Seobang(Household Secretariat), and enrolled the literati on Jeongbang(the Supreme Military Council) or Seobang(Household Secretariat), not on Dobang(residence reinforcements). Among the most representative powers of Mungaek (retainers) at that time, there were Park-hweon, Kim-Chang and Yu Cheon-woo. The Mungaek(retainers) of Choi woo or Choi-Hang broke off into Dobang(residence reinforcements), Seobang(Household Secretariat) and Yabeolcho(Night Patrol). Choi-u or Choi-hang dispatched their Mungaek(retainers) in the Yabeolcho(Night Patrol). Lee Yu-jeong, a member of Choi-u's Dobang(residence reinforcements), was one of Choi-u's Mungaek(retainers) and the leader of Yabeolcho(Night Patrol). Song Gil-yu who was Yabeolchojiyu, the leader of Yabeolcho(Night Patrol), served for Choi-hang by flattery. Lee Yu-jeong was a member of Choi-u's Dobang(residence reinforcements) and the leader of Sambyeolcho(Three Elite Patrols) at the same time. Indeed, Mungaek(retainers) of the Choi family commanded even Yabeolcho(Night Patrol).

Choi-ui succeeded Choi-hang's power with much turbulence. This procedure was different from Choi-u's case having eliminated his opponents and managed to acquire his own influence. When Choi-hang transferred his power to Choi-ui, Choi-hang appealed to his Mungaek(retainers) for the necessity of the power succession. In this regard, it can be maintained that Choi-hang's Mungaek(retainers) were succeeded as Choi-u's Mungaek(retainers); however, it is also arguable that there was concern over the forces who opposed to the power succession. Further, Choi-hang's death was known to the public only after Choi-ui ascended the throne with support of Yabeolcho(Night Patrol), Sineuigun(Army of Transcendent Righteousness), Seobang(Household

Secretariat), 3beon, Dobang(residence reinforcements) and the 36th 'beon'(order).

This shows that Choi-ui had a very unstable status from the very beginning of his regime. Consequently, Choi-ui was assassinated by powerful Mungaek(retainers) of the Choi family such as Kim-jun and Park Seong-jae, as the result of that the regime of the four generation of Choi's family finally had collapsed.

Key Words : Mungaek(retainers), Gano(the House Slaves), Choi Chung-heon, Park Jin-jae, Choi hang, Choi u, Choi ui, Dobang(residence reinforcements), Jeongbang(the Supreme Military Council), Seobang(Household Secretariat).